

보도시점 : 2025. 1. 21.(화) 11:00 이후(1. 22.(수) 조간) / 배포 : 2025. 1. 21.(화)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지원
... 설 연휴(1.27~30,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 대책기간 동안 총 3,484만 명(전년^{대책기간 5일} 2,70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1.29)은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544만 대)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

* 이동인원·교통수단은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 통행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

○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1.28)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1.30)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설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기간 / 방법 : '24. 12.17 ~ 23(7일간)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 조사표본 : 10,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97%)

□ 국토교통부는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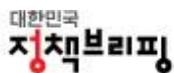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 세부내용은 참고파일 첨부)

-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작년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329.8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또한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 (②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설 전·후 4일간(1.27~30)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7개소), 지역 관광 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역사 등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 (③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27,850회), 9.0%(약 147.9만 석) 늘린다.
- (④교통안전 확보)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6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24.12.30~’25.1.10)과 공항(13개)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25.1.2~1.8)을 실시하였다. 또한 TV·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⑤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체류 여객 지원을 위해 편의물품 등도 준비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04)
		담당자	사무관	최효준 (044-201-3786)
담당 정책 <교통안전>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유진 (044-201-3230)
		담당자	사무관	안규영 (044-201-3867)
<버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유인 (044-201-3823)
		담당자	사무관	박삼범 (044-201-3824)
<도로>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책임자	과 장	허나운 (044-201-4130)
		담당자	사무관	박상철 (044-201-4135)
<철도>	철도국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 욱 (044-201-3970)
		담당자	사무관	심동휘 (044-201-4631)
<항공>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윤근 (044-201-4204)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1-4184)
공 동 <해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044-200-5733)



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